「빛좋은 개살구」 1조원 페인트시장

국내 화학산업은 석유화학 부문의 급격한 신·증설에 따라, 한편으로는 공급과잉 및 가격폭락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초원료 공급증가에 따라 질적 성장 즉, 정밀·소재부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단기간의 물량 확대가 어느 선까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도 20년이 훨씬 넘는 역사 및 그 중추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초유분 제조 기술에서 유도품 제조 기술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건설할 때마다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똑같은 기술을 경쟁적으로 들여오다 보니 기술료만 대폭적으로 올려놓아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에틸렌 기준 연간 생산능력이 350만톤에 이르고 있는 오늘, 석유화학 전 부문의 제조기술을 모두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외국인들의 눈에는 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돈 벌레」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되기 십상일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국제가격 하락의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는 빨리 반성하고 빨리 무엇을 정비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 나아갈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페인트 부문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페인트 수요가 연간 1조원대에 이르고, 건축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연평균 성장률이 20%선이라고 하니, 페인트부문도 어엿한 규모화를 이루었고 여기에서 내실을 다진다면 그 어느 산업보다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국내 페인트 산업체들이 지난 80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한 기술도입 건수가 201건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83년 13건, 84년 11건, 85년 19건, 86년 23건, 88년 18건, 89년 23건을 정점으로 90년 14건, 91년 10건, 92년 3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기술도입 건수의 많고 적음 자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화학산업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국내 실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그 기술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페인트기업들은 고부가제품을 생산하고 해당기업의 기술수준을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범용기술에 속하는 기술을 중복적·무차별적으로 도입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페인트기업들은 한번 도입한 기술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재도입하고, 그것도 거의 비슷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도입해 외화를 낭비함은 물론, 이를 이용해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 양 선전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최근들어 기술도입 건수가 줄어든 것은 해당기업들이 기존의 도입기술을 잘 활용하고 익혀서 재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진기업들이 국내 페인트기업의 생리를 파악한 나머지 기술도입료(로열티)를 대폭 인상하고 또 고기능성 특수도료 제조 기술 이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면, 국내 페인트산업의 위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 1조원 시장도 실은 「빛좋은 개살구」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국내 56개 페인트 기업들은 14개국에서 201건의 기술을 도입한 가운데 일본에서 136건, 미국에서 34건을 도입해 일본기술 도입비중이 67.6%, 미국 비중이 16.9%에 이르고 미국·일본을 합하면 84.6%에 까지 달하고 있다.
한 나라, 한 산업의 타국 기술비중이 70%에 이르고, 그 나라 기술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필시 기술종속화를 부르고, 그 나라의 협조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창속 원숭이」 신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국내 페인트산업 경영자 및 기술자, 관계자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리라 믿는다.

한 나라의 성장 ·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 타국 기술에 절대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도 일본에게!
「돈」만이 전부이고서는 절대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펭끼쟁이」에서 「페인트」 또는 「도장기술자」로 성숙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화학저널 1992/12/1>